

경기신문

도의회 민주당 수석대표단, 이재강 평화부지사 지지 방문

박근철 “개성공단 재개 노력 응원” 이재강 “범국민운동 전개할 계획”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수석대표단은 8일 임진각 평화누리 공원에 마련된 경기도 평화부지사 임시집무실을 방문했다.

이날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박근철(의왕1) 대표의원을 비롯해 정승현(안산4) 총괄수석, 박성훈(남양주4) 정책수석, 이기형(김포4) 협치수석, 김성수(안양1) 수석대변인, 이동현(시흥4) 정책위원장, 김철현(김포3) 대변인, 손희정(파주2) 정조위원장, 이희건 개성공단 협동조합 이사장 등이 집무실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이재강 평화부지사의 노력을 지지하고, 비무장지대 내

도라산 전망대에 조속한 평화부지사 집무실 설치 승인을 유엔사에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이재강 평화부지사는 개성공단 재개를 위해 비무장지대 내 도라산 전망대에 평화부지사 집무실을 설치하려고 했으나, 유엔사에서 승인을 불허해 무산됐다. 이후 이재강 평화부지사는 지난달 10일 임진각 평화누리 공원에 임시집무실을 설치하고, 평화부지사 직무를 보고 있다.

또 유엔사 규탄과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1인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박근철 대표의원은 “경기도의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노력에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면서 “경기도, 경기도의회, 개성공단 입주기업인들이 머리를 맞대고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해법을 찾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재강 평화부

사에게 말했다.

정승현 총괄수석도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 재개를 위해 임시집무실까지 설치하고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평화부지사에게 감사하다”며 “도의회와 1370만 경기도민이 함께 응원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고 전했다.

이에 이재강 평화부지사는 “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방문이 큰 힘이 되고 있다”면서 “도의회와 함께 개성공단 재개를 범국민운동을 전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1월 4일부터 5일까지 개성공단 협동조합과 함께 의화관에서 개성공단 물품 판매·전시전을 개최하는 등 개성공단 재개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박건 기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수석대표단 개성공단 협동조합과 함께 평화부지사 임시집무실을 방문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공

남북 지자체 협력관계 구축

지방정부협의회 내년 출범

경기도 2년간의 노력 '결실'

내년 1월 비대면 출범식 진행기로
41곳 확정... 8~9곳도 긍정적 검토
연내 협의회 회장단과 사무국 조성

사업 활성화·네트워크 구축 등 추진
도, 제도 개선 등 체계 건설 '주력'

민선7기 경기도가 2년여간 추진해온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출범이 가시화될 전망이다.

경기도는 당초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개최를 이달 추진하기로 계획했으나, 코로나19의 대규모 확산의 여파로 인한 행사 추진의 어려움과 많은 지자체의 합류를 도모하기 위해 내년 1월 비대면으로 출범식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지방정부협의회는 남북의 지방정부간 평화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구성됐다. 현재 경기도를 포함해 도내 31개 시군과 서울시 중구, 울산시 울주군, 충청남도 당진시, 경상남도 거제시·합천군, 부산시 금정구·남구·동구 등 현재 41개 지자체가 참여를 확정 지었다.

이와 함께 8~9개 지자체가 협의회 참여에 대한 의사 표명한 상태이다. 부산시 연제구는 지난 3일 참가신청서를 도에 제출하며 지방정부협의회에 합류 의사를 밝혔다.

연제구 관계자는 "부산이 실항민의 고향이고 남북평화에 관심이 많은 이성문 연제구청장의 뜻에 따라 협의회에 가입하기로 했다"며 "내년 의회에 규약 동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의회와 논의해 협의회에 합류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협의회 확대를 위해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도 연제구를 비롯한 부산 사상구, 영도구 등과 접촉하며 협의회 합류를 적극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는 이달 지방정부협의회 회장단과 사무국을 꾸려 본격적인 출범에 나서며 실무진 등이 모여 협의회 개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전국 지자체 중 희망하는 지자체가 참여하게 되며, 환경·농업·문화(예술)·체육·관광·보건·기업유치 등 7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된다.

또 남북교류협력사업 활성화 사업 추진, 남북평화협력을 위한 국내외 네트워크 구축, 남북 협력과 관련된 조사·연구·분석 및 교육 협력을 위한 법령 및 제도개선 등을 추진한다.

지방정부협의회에서는 ▲문화, 관광, 보건의료, 체육, 학술, 환경, 교육 등의 교류와 협력 ▲남북 교류와 협력에 필요한 조사, 연구,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국내외 남북교류와 협력 네트워크 구축 ▲자원의 개발, 이용 및 조사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논의하며 이와 관련한 사업 등을 진행하게 된다.

도는 남북사업 추진시 단기적 성과보다는 제도개선, 기금 확충, 거버넌스 구축, 지속 가능한 사업 발굴 등을 통해 남북교류협력을 지속할 수 있는 역량과 체계를 갖추는 데 주력한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4월 도내 31개 시군과 거제시, 울주군, 당진시가 지난달 29일 열린 제3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설치 운영 내용을 담은 '남북평화협력지방정부협의회 규약동의안'을 의결해 출범에 필요한 행정절차를 마무리했다.

/이지은 기자

미국의 리더십 회복과 대북정책 전망

코로나19로 유례없이 증가한 우편투표로 2020 미국 대통령 선거는 소송 전으로 혼란을 겪고 있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정권인수 절차는 차분히 진행되고 있다. 바이든 당선인이 내각과 백악관 참모 인선이 발표되는 가운데 여성과 이민자 출신 등 소수파의 약진이 부각되는 가운데, 우리입장에서는 미국의 외교정책 특히 한반도 정책의 향배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앤서니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지명자, 애브릴 해인스 국가정보국 국장 지명자, 중앙정보국 지나 헤스펠드 중앙정보국장 지명자, 알레한드로 마요르카스 국토안보부 장관 지명자를 보면 바이든의 공언대로 여성, 흑인, 이민자 출신이 어우러진 “미국 다운 행정부”라는 특징과 함께 외교정책 면에서는 오바마 행정부 주요 인사의 복귀가 두드러진다.

외교정책에서 주목할 인물은 사실 당선인 자신이다. 조지H.부시 아래 외교정책에 깊은 이해와 경험을 가진 대통령은 20년 만에 처음이라는 설명처럼 바이든 당선인은 상원 외교위원장으로 초당적으로 구성된 집필진을 통해 아미티지 보고서로 알려진 2007

세계는 지금



이성우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년의 미·일 동맹보고서를 추진했다. 미국의 세계전략 차원에서 미일동맹을 축으로 아시아에서 역할 확대를 추구했다는 점에서 오바마 행정부 수준으로 미일동맹의 강화가 예상된다.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정책은 ‘변화’가 아니라 ‘회복’이라고 공언했다는 것은 세력구도의 변화와 새로운 문제가 등장했다는 점에서 단순한 복구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의 도덕적, 경제적, 그리고 외교적 리더십을 회복하고 미국의 예외주의를 긍정적 차원으로 이끌어 가겠다는 것이다. 미국이 추구하는 외교정책의 목표에 있어서는 트럼프 행정부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지만, 이들 목표를 추진하는 방법에 있어서 미국외교의 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다.

동아시아와 관련해서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정책은 오바마 정부로 단순한 복귀가 아니라 트럼프의 개인적 변덕으로 실추된 미국의 국격과 위상을 회복하겠다는 것이다. 이러한 트럼프의 외교실책에는 시리아 철군, 쿠르드족과 동맹의 파기, 터키의 에르도안간 대통령과 친교, 그리고 김정은과 정상 회담을 추진 등을 포함하고 있다.

외교를 담당할 블링컨 지명자는 2009년부터 18년간 바이든과 정책행보를 같이하는 과정에 대통령과 생각이 같아진 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이다. 프랑스어에 능통한 외교관으로서 신중하고 우아한 언행으로 대통령을 보좌하면서 미국의 외교정책을 과도한 낙관주의와 불필요한 강경론이 아닌 엄격한 현실주의에 기초해 추진할 것이라는 평이다. 이를 종합할 때, 바이든 행정부의 외교정책에 북한 비핵화는 차순위 문제이며 원칙의 준수를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정부의 역할이 더 중요해진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는 북한이 미국의 관심을 끌기 위한 불필요한 도발을 억제하고, 실무급 협상을 통한 미국과 북한이 수용할 수 있는 단계적 비핵화 과정의 가능한 통로를 모색해야 한다.